

# 남성들의 난임 경험에 관한 심리적 특성 탐구: 근거이론적 접근<sup>†</sup>

윤 준 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김 현 수<sup>‡</sup>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구조화 과정을 통해 난임 남성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핵심 현상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현상으로부터 분석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남성들의 난임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년 이상 난임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눈덩이 표집과 유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표집 하였고, 20대부터 50대까지 총 8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를 전사하여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통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해 총 120개의 개념(concept)과 26개의 하위 범주, 11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축 코딩(axial coding)을 통해 인과적 조건으로 '난임 경험 및 인식', 맥락적 조건으로 '난임 외상',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지도', 현상으로 '심리적 고통', 중재적 조건으로 '지지체계의 변화', '아내의 변화', 작용 및 상호작용으로 '아내에 대한 인식변화', '자기반성', '임신 및 출산 지식 습득', 결과로 '난임 해결을 위한 노력', '부부관계의 변화'라는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해 '사고 및 감정 변화'라는 핵심 범주를 발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남성들의 난임 경험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소통형', '갈등형', '관망형', '자기반성형'이라는 유형분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난임 남성, 심리학, 근거이론

<sup>†</sup> 본 논문은 윤준호의 2021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현수,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Tel: 02-2220-0618, E-mail: hyunsookim@daum.net

한국 사회에서 무자녀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부터 이질적인 이미지로 고착되어 왔으며, 특히 남자는 아들을 낳아 가문을 계승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이어가는 양상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로 인식되어 왔다(조남옥 & 박영숙, 1996). 이러한 인식은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자신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맥락에서 당연시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난임 가정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정국인 & 엄명용, 2014).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편향된 시선이 난임 과정상에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난임 과정이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타인의 시선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의 과정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난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이미 대두되어 있고, 관련된 심리학적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난임 인구에 경우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고(Cousineau & Domar, 2007), 난임 시술 과정 동안에 심리 상담을 받은 경우, 우울과 불안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임신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erzioglu, 2001). 이는 난임 과정이 포기하지 않고 임신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는 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낼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Gameiro et al., 2015).

우리나라의 경우 난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접어들면서, 국가적 지원 체계와 관심이 활성화되고 있다(정국인 & 엄명용, 2014). 난임 인구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난임 관련 연구들은 대상자를 주로 여성으로만 설정하여 진행됐기 때문에 남성들이 난임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와 감정의 변화과정을 겪는지 유추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다(Seo & Kim, 1998; 정국인 & 엄명용, 2014).

난임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조차 의학적 연구 혹은 생리학적 측면의 연구 분야로만 강조되는 풍토와 더불어,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 연구 실현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심리학 및 정신건강 분야의 연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Pantesco, 1986). 또한, Webb과 Daniluk(1999) 역시 난임 남성들에 대한 연구 실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 성과의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면서 난임 과정이 고립감, 배신감, 분노, 무기력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남성들의 난임 과정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영역은 심리학적 측면이라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난임 연구들은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김미옥, 남현아, 윤미선 2016; 이영희, 2018), 확인할 수 있는 결과 값들은 주로 여성들의 난임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황승숙(1998)은 난임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해당 연구를 통해 난임 여성들이 우울함을 경험하고, 우울감에

대한 맥락은 수태가능성과 지지체계의 반응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난임 여성들의 우울감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정도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민소원, 김영혜, 조영란(2008)은 난임 클리닉을 방문하는 19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여성들의 우울 정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증상은 나이에 따라 난임 기간이 자연히 증가하면서 임신 성공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우울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우울감이 관계의 양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규명하기 위해 Hwang과 Jang(2015)은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금액적 혜택을 받은 난임 여성 153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에 난임 여성들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가 우울감에 부적상관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남성들의 연구 결과는 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난임 과정이 남성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국인과 엄명용(2014)은 난임 남성 6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면담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공통성과 그로 인한 보편화를 시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식 노릇을 못함’, ‘타인과의 차이가 고통으로 다가옴’, ‘부부 공동의 목표가 사라짐’ 등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결과들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분야에 특성상 현상 자체에 대한 공통 경험을 제외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인과적

조건,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 등 난임 경험 전체에 대한 구조화 과정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간 내면에 대한 감정과 사고의 영역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와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유추할 수 없었으며, 끝으로 난임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인 성(性)적 요소와 사회관계적 요소는 현재까지의 연구들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

심리적 요소 이외에 성적요소와 사회관계적 요소는 선행 연구인 여성들의 연구들을 분석하면 난임 연구 분야에서 심리적 요소만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난임 과정에서 성행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난임이라는 현상 자체가 임신을 위한 성관계라는 생각에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한혜실, 2002). 혹은 이러한 성관계 변화 양상이 난임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포기, 수용, 새로운 전략 찾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드는 중재적 조건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황승숙, 1999).

남성들의 경우, 적절한 성 역할에 대한 수행은 사회 문화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 기대에 수반되는 일반적 행동 양상으로 여겨진다(O'Neil, 1981). 때문에 앞으로의 난임 남성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행동 양상이 난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지, 변화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지, 변화되는 양상을 일으키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Seo와 Kim(1998)은 비뇨기과를 방문한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대조군 31명과 비교하여 난임 남성들이 그렇지 않

은 남성들보다 우울, 불안, 예민, 공포불안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게 높게 나타났으나, 적대감, 편집증, 신체화 증상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난임 인구에 대한 심리적 배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난임이라는 과정 속에서 남성들이 경험하는 성관계 수행에 대한 변화과정과 그 의미들을 탐구하는 것이 여성들의 연구만큼 중요한 영역이며, 동시에 남성 연구에 있어서 맹점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여성들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변화의 맥락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조건은 사회관계적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혜실(2002)은 난임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난임 경험은 자기 자신이 허물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임 이후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재구축하여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중재적 조건 중 ‘직장생활’에 대한 요소가 있었고, 직장생활과 같은 사회 활동이 난임이라는 고통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방패막이’가 된 느낌을 받은 경우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직장생활이 난임 남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변화의 과정을 심도 있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일컫는다. 또한, 여성 연구에서 드러난 ‘방패막이’가 된 직장생활이라는 요소가 남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변화 및 해석 되는지, 어떻게 발현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의 경우 현대 사회 속에서 전통적 가족

주의에 의한 남성의식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몰두하는 양상으로 나아가도록 사회화 되어 왔다(김태현 & 김양호, 2003). 이는 남성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역할 수행 과정이 직장생활과 그에 따른 사회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편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남성들에 대한 역할은 직장생활을 통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정 밖에서 존재하는 공공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보편적 문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자본주의 속에서 그 기능을 이루고 실현시키기 때문이다(김효선, 1987). 현재까지 밝혀진 난임 남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직장생활에 대한 요소는 다소 한정적인 범주로만 연구되어 왔다. 난임 남성들은 위축감을 경험하고, 직장에서는 난임인 것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면(social persona)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국인 & 엄명용, 2014).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가면을 쓰게 만드는 특수한 상황들과 사고 과정, 감정 변화 맥락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직장생활에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들과 상황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을 규명하고, 어떠한 심리학적 변수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촉발시키는지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남성들이 난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이 무엇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심리적 갈등과 관련된 성적인 영역에 대한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성에게 있어 가장 큰 범주인 직업 환경의 변화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앞으로

의 난임 연구 분야에서 과학적 자료 확립을 위해 반드시 상기 절차들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을 일컫는다.

이에 본 연구는 난임 남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직업 환경의 변화와 특성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 개입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 이론을 수행하였다. 근거 이론은 특정 현상에 대한 변수들이 명확하지 않고, 현상을 구성하는 무수한 범주들과 그 관계들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용이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질적 연구는 알려진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해에 대한 새로운 과정들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방법으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Stern, 1980), 본 연구를 통해 남성들의 난임 경험과정에서 그동안 이해의 부족으로 알 수 없었던 현상들을 규명하고, 감정과 사고의 과정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보다 사실적인 정보들을 확립해 나간다면, 증가하고 있는 난임 인구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립하고 설정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실효적 자료가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표집과 유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표집을 실시하였다. 남성들에게 난임과 관련된 주제는 민감한 주제로, 대상자를 용이하게 찾기 어렵다고 예상했고, 때문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참여자들을 표집하는 이론적 포화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완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Glaser, 2001). 또한, 이러한 목적 표집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최대한 동일한 특징을 지닌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을 기준으로 선정하였고(Strauss & Corbin, 1990), 문헌고찰을 통해 자료로부터 파생된 개념들을 근거로 연구 자료에 대한 개념과 속성, 차원을 최대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즉, 난임의 정의가 최소 1년 이상의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표 1. 참여자 정보

구분	연령	난임 기간	자녀 유무
참여자 1	58세	약 7년	유
참여자 2	34세	약 3년	유
참여자 3	34세	약 3년	무
참여자 4	25세	약 2년	무
참여자 5	41세	약 11년	유
참여자 6	49세	약 3년	무
참여자 7	36세	약 3년	무
참여자 8	36세	약 5년	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대상자 선정기준은 2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한 경험이 있는 남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1과 같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수행과 연구 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전체 연구 과정을 진행하였다(HYU-2019-08-008-3).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진행 과정들을 전부 설명하고 진행하였다. 면담과정에서 내용을 녹음하게 되는 점과 더불어, 면담 내용은 모두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이후에 참여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가졌다.

**자료수집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참여자를 제외한 사람이 없는 개별적인 공간에서 면담을 실시하였고,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 난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COVID-19를 고려하여 유선 방식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의 모든 발화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사되었다. 면담 과정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른 난임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였고, 소재의 특성상 참여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발언에 따라가면서 탐색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시행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구성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범주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난임 남성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 및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Seo & Kim, 1998), 부부

표 2. 면담 질문과 범주

질문 범주	질문 내용
Psychological	1. 난임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느낀 주된 감정 변화는 무엇입니까
	2. 난임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한 행동과 변화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3. 난임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4. 난임이 본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Sexual	1. 난임 과정에서 부부간 (성)관계에서 변화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2. 난임을 전후로 본인이 체험한 남성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3. 난임을 겪는 남성들의 성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Job & Work	1. 난임이 직장 생활에서 영향을 미친 것들은 무엇입니까
	2. 난임이 사회 생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 것들은 무엇입니까
	3. 난임을 전후로 직업적인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나 상관관계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성역할 수행에 대한 변화 및 특징들을 규명함과 동시에 (Cousineau & Domar, 2007), 난임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직업 및 사회생활의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한혜실, 2002). 질문지의 구성 범주는 표2와 같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 분석을 위해서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방법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은 회고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과 행동, 상호작용 및 과정을 나열하게 하고, 이 단계들을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진술하거나 가설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Glaser & Strauss, 1967). 초기에는 범주들이 추상화 정도가 낮은 하위 범주로 묶이고, 연구가 진행될수록 범주들 간의 개념 관계를 통해 상위 범주가 만들어져 간다. 이와 같은 귀납적 방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개방 코딩과 축 코딩, 선택 코딩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즉, 전사화된 면담 자료를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특정 개념과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비슷한 의미나 유사하게 묶이는 개념들을 범주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자료가 더 이상 수집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론적 포화도(theoretical saturation)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서의 포화란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으로 생성된 범주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cross-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하위범주들을 중심범주로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범주들을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의 결과 값들과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끝으로 선택코딩에서는 남성들이 난임 과정에서 경험하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도출된 핵심 범주와 다른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토대로 남성들의 난임 경험과정을 유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Padgett(2016)의 삼각검증과 동료집단 조언을 사용하여 질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2명 이상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였고, 이에 심리학과 교수 1명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심리치료학 박사 1명이 추가적으로 자료 분석을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경험적 근거에 기반을 토대로 분석 및 비교 되었다(Strauss & Corbin, 1990). 즉, 개념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했다면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연결된 범주들이 많은지, 많은 범주가 제대로 분석되어졌는지, 분석된 범주들이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양성 있게 구성되어있는지, 분석 속에 과정은 존재하는지, 결과

물들이 실제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며,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 결 과

### 개방 코딩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전사하고, 내용을 기반으로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으며, 유사한 특성을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120개의 개념(concept)과 26개의 하위 범주, 11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

### 축 코딩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들과 작용 및 상호작용 등 결과를 밝혀내는 과정인 축 코딩 과정(Strauss & Corbin, 1998)을 통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 및 상호작용,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축 코딩 단계의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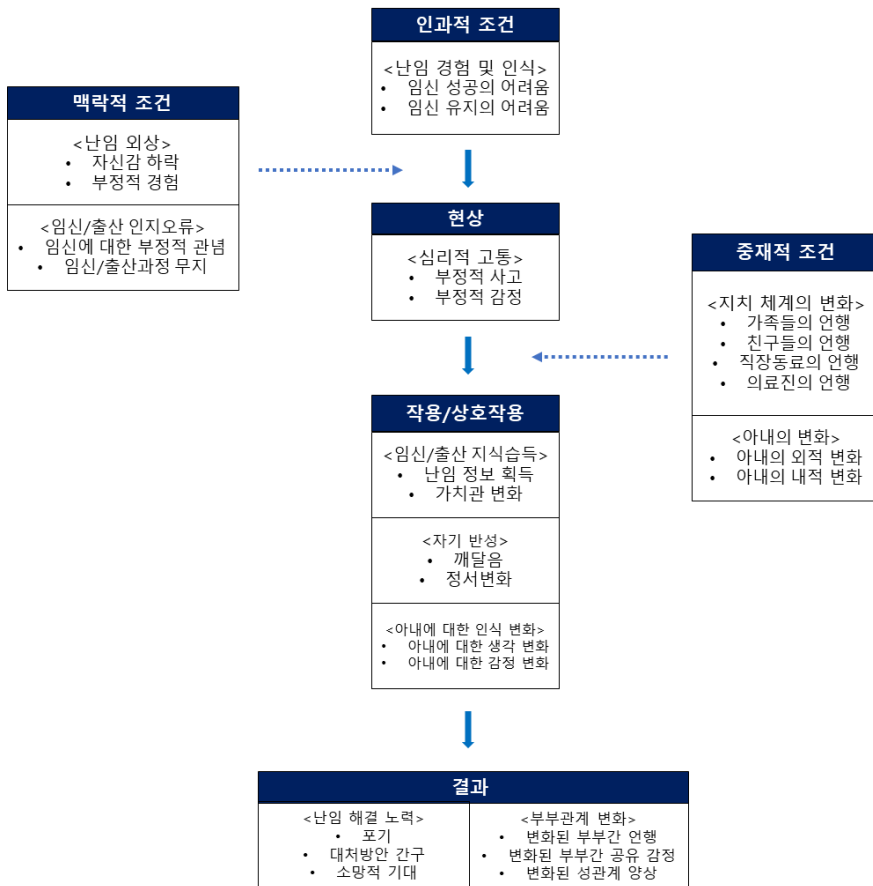


그림 1. 남성들의 난임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표 3. 난임을 경험하는 남성들에 관한 개념과 범주(계속 1)

페러디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난임 경험 및 인식	임신 성공의 어려움	정자 운동성이 저하되었음 기형 정자가 많음 전립선 염증 같은 질병들
		임신 유지의 어려움	임신 중 합병증이 발생함 원인 불명으로 유산
		자신감 하락	아내는 문제가 없고, 나만의 문제라 위축을 느낌 가까운 가족 이외에 사람들 간의 교류를 피하게 됨 주변 사람들이 난임을 남자의 문제라고 생각함 병원에서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창피함 신체적 결함이라는 생각에 울게 됨 난임 이라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짐
			임신의 어려움을 알게 됨 유산을 반복할 것 같은 공포감
맥락적 조건	난임 외상	누적되는 부정적 경험	임신 정조가 있어도 다음 과제에 중압감을 느낌 아내를 도와주다 보면 나의 여가가 줄어들 응급 상황으로 결근하는 일이 잦아짐 회사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태도로 지적 받음 임신에 성공하면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들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임신에 대한 부정적 관념	남자들 사이에서 임신은 실수로 인식되어 옴 자기계발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부부만의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 걱정
		임신/출산에 대한 인지 오류	임신은 여자만의 영역이라는 생각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무지	임신 과정에 대한 무지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는 여자 동료 건강해도 산부인과를 가야한다는 생각에 화가남
현상	심리적 고통	부정적 사고	임신은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남편 역할에 대한 한계성을 지각함 아버지 역할이 더 이상 없을 것만 같은 생각 반복될수록 임신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스스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부정적 감정	남들이 나를 한심한 남자라고 생각할 것 같음 회사에서 소외감을 느낌 성관계 이후에도 임신이 실패하면 허전함을 느낌 죄책감이 끊임없이 올라옴
			내 감정을 털어낼 사람이 없어서 우울함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조바심이 생김 친구들의 사소한 질문에도 부담감이 증가 창피함 때문에 화가 많아짐

표 3. 난임을 경험하는 남성들에 관한 개념과 범주(계속 2)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재적 조건	지지체계 의 변화	가족들의 언행	출산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
			아내를 돌봐주는 부모님
			친척들의 간섭이 늘어남
		미안하다는 부모님의 사과	
		친구들의 언행	남자 몸에 좋은 것들을 알아봐 주는 친구들
			난임에 대한 대화를 불편해하는 친구들 반응
	난임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는 느낌		
	아내의 변화	직장동료의 언행	팀원들이 결혼에 대해 이해를 못 해줌
			상사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함
			여성 상사가 내 상황을 이해해 줌
		의료진의 언행	난임 경험이 있는 동료가 업무를 도와줬음
			난임으로 대화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함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의료진			
아내의 변화	아내의 외적변화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주치의	
		객관적인 자료로 위로해 주는 병원의 태도	
		다른 병원을 권고하는 병원의 모습	
	아내의 내적변화	시술을 거듭할수록 약해지는 아내의 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는 아내의 행동	
		나를 응원하려는 아내의 모습	
아내에 대한 인식변화	아내에 대한 생각 변화	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아내의 태도	
		외로움을 느끼는 아내	
		병원에 다닐수록 우울해지는 아내	
	아내에 대한 감정 변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아내	
		아내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해	
		아내와의 생각의 차이점 인식	
작용 및 상호작용	자기반성	아내에 대한 생각 변화	아내에 대한 걱정
			아내의 고통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작용
			아내의 고통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작용
		정서 변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님을 깨달음
			평소랑 똑같이 행동하면 아내와 더 싸우게 됨
			회사에서는 대화를 할 때 신중함이 필요함
	난임 정보 획득	아내에 대한 생각 변화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
			아버지로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함
		정서 변화	내려놓는 마음을 가짐
			감정의 한계성을 인식함
			주치의에게 난임 정보를 더 많이 물어봄
임신/출산 지식 습득	난임 정보 획득	주변 사람들에게 남자 몸의 좋은 것을 찾아봄	
		국가 지원 체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봄	
		아이의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함	
	임신/출산 가치관 변화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을 자각함	
		유산율 생식 능력의 가능성으로 인식함	
		전문적인 시술의 필요성 인식	
임신과 출산이 여자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			

표 3. 난임을 경험하는 남성들에 관한 개념과 범주 (계속 3)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결과	난임 해결을 위한 노력	포기	임신이 사치처럼 느껴짐
			끝나지 않는 난임 과정에 대한 절망
			아내의 건강을 위해 임신을 포기
			아이가 없을 때의 좋은 점을 상상해 봄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다짐
		대처방안 간구	의사와 병원 보조제에 더욱 의존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취미 추구
			아내를 위한 심리 상담을 찾아봄
			아내에게 퇴사를 권유함
			운동으로 몸을 가꿈
	소망적 기대	대리모에 대한 논의	
		입양에 대한 고민	
		나의 가치관과 사상을 전해줄 자녀를 상상해 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서 쌍둥이를 꿈꾸게 됨	
		종교에 더욱 매달리게 됨	
	부부관계 변화	변화된 부부간의 언행	성별도 상관없이 아이만 갖고 싶음
			긍정적인 발언을 더 자주 함
			객관적인 수치로 설명하면서 위로하게 됨
			이혼하자고 권유함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게 됨
변화된 부부간의 공유 감정		대화를 하지 않을수록 더 자주 부부싸움을 함	
		적극적으로 해결할수록 서로에게 불만이 높아짐	
		상대방의 신경질을 감내하기 어려움	
		아내의 고통을 내가 몰라서 더욱 힘들어짐	
		역경을 거친 전우애라는 생각이 들	
성관계 양상	공유 감정	임신이 되면 오히려 불안해짐	
		서로에게 소외감을 느낌	
		아내를 대신해서 임신해주고 싶음	
		성관계를 반복할수록 기계처럼 느껴짐	
		이전보다 성관계를 실패할 때가 많음	
	변화된 성관계 양상	점점 더 성욕이 줄어들	
		성관계에 성공해도 이전과 다르게 가까스로 성공함	
		아내를 보기가 점점 창피해짐	
		의무감으로 성관계를 함	
		간절함을 가지고 성관계에 임함	
몸 관리에 신경 쓰면서 성관계를 함			
지정한 날짜에 성관계 횟수가 늘어나게 됨			

##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도록 이끄는 사건 혹은 일들로 구성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난임 남성들의 중심 현상인 ‘심리적 고통’은 ‘난임 경험 및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정자 운동성이 저하되었거나, 진립선 염증으로 다른 남성들과 다르게 임신 성공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임신이 성공 하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임신이 유지되지 못하고 유산을 하게 되면서 임신 성공 및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 과정을 ‘강도’에 따라 얼마나 강하고 약하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가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의 차원으로 밝혀졌다.

“저랑 와이프 둘 다에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정자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하고...또 염색체 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유산이 되다보니까(참여자 6번)”

“병원 가서 오늘은 꼭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때 명확하게 했죠. 근데 그렇게 5개월을 해도 안돼서 검사를 받았는데...제 정자가 활동성은 괜찮은데 기형성이 많아서, 그렇게 난임 판정을 받았거든요(참여자 7번)”

##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상황이나 특별한 조건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1998). 심리적 고통이 유발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난임 외상’과 ‘임신/출산에

대한 인지오류’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난임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로 인해 임신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자기 고유의 결함이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서 부정적 상황들에 자주 노출되는 난임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난임 외상이 ‘강도’에 따라 개인마다 차원에 입각하여 강하게 혹은 약하게 경험하게 되는지가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의 첫 번째 범주로 나타났다.

“뭔가 안 갖춰졌다라고 주변에서 생각하니까... 아기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너는 없느냐 라고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8번)”

“제가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안 되니까...좀 착잡하기도 하고, 앞으로 될까 그런 생각들. 내 몸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기를 못 가지니까,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그런 생각들(참여자 4번)”

맥락적 조건의 두 번째 범주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지오류로 밝혀졌다. 남성들은 아이를 갖거나 육아를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방해받거나 무조건 힘든 과정이라는 부정적 관념이 있었다. 또한, 임신이 여자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인지오류가 ‘정도’라는 속성에 입각하여 많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거는 여자만의 영역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참여자 3번)”

“회사 다닐 때 여사원들이 4명이 있었는데 다들 마지막 달까지 일하니까, 그것도 둘째를 그렇게도 하고(참여자 6번)”

“임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얘기잖아요. 사귄 때도...임신을 항상 피하려고 하고, 임신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참여자 7번)”

### 현상

현상은 연구 참여자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하여 홀로 혹은 집단으로 나타나는 일이나 사건들을 말하며,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난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심리적 고통’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난임이라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우울감을 비롯한 조바심, 허전함, 부담감을 경험한다. 또한, 남편 역할과 아버지 역할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부정적 감정과 사고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수준’이라는 속성에 입각하여 높거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병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쾌하지 않았어요(참여자 8번)”

“티는 안내려고 하는데..좀 뭐랄까 죄책감도 아니지만 좌절감도 아니고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 6번)”

###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현상 속에 있는 보다 넓은 구조적 상황을 말하여, 맥락적 조건과 비교할 때 더욱 강하고 직접적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지지체계의 변화’와 ‘아내의 변화’가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고, 참여자들은 난임 과정 속에서 가족, 친구, 직장동료 그리고 의료가 자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난임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아내의 내외적 변화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지체계의 변화는 ‘유형’이라는 속성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뉘어졌고, 아내의 변화는 ‘정도’라는 속성에 따라 많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사람들한테 꼴불견이 되는 거. 왜 재는 자꾸 전화하러 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밍보이는 짓을 하는 거죠(참여자 3번)”

“저 때문인 것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내가 타박하지 않고, 그거는 되게 고맙죠(참여자 4번)”

### 작용 및 상호작용

작용과 상호작용은 현상에 대해 대처하고,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의도적, 고의적 행위를 말하며, 문제를 풀기위해서 취해지는 일종의 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내적 논의와 검토를 말하며(박승민, 2012),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마주하는 상황, 문제, 쟁점들을 다루면서 현상을 다듬어 가게 된다. 본 연구에

서 참여자들은 임신/출산 지식을 습득하고, 아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하며, 자기반성을 통해 심리적 고통이라는 현상을 대처해 나갔다. 임신/출산지식 습득, 자기반성은 '정도'라는 속성에서 많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에 대한 인식변화는 '유형'이라는 속성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이 좀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이제는 되게 소중한 거고. 애기가 들어오는 게 되게 힘든 일이다. 임신의 소중한 게 제일 커진 거 같아요(참여자 7번)”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있다고 더 알아보는...보건소에서 엽산제도 3개월 치 주고, 산전검사도 해주고 그런...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장려금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양육 수당도 주고(참여자 4번)”

“임신이 와이프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기를 그냥 순탄하게 낳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겠다(참여자 6번)”

## 결과

결과는 현상을 다루기 위해 대처하거나,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난 것을 말한다 (Strauss & Corbin, 1998).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의도적일 수도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고통이라는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 결국은 포기, 방관 간구, 기대라는 또 다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난임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유형'이라는 속성에 따라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로 나뉘어졌다. 또한, 난임이라는 현상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주들에 따라 결국 부부관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유형'으로 나뉘는 결과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노력은 하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조급하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다만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오히려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면 더 서로에게, 부부관계에도 더 안 좋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그러면 애기가 생긴들 큰 축복이 아닌 거 같다고(참여자 8번)”

“크게 싸워서 다 때려쳐라 하면서 싸우고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고. 화났을 때 이제 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참여자 7번)”

“난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감정이 불안감이에요 근심과 걱정. 근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랑만 얘기하는 그건 공감대만 형성될 뿐이지, 그래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참여자 3번)”

“그전에는 임신이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전보다 성관계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그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관계할 때도 이게 좀 잘 안되더라고요. 되도 뭐 가까스로(참여자 6번)”

## 선택 코딩

선택 코딩은 연구자가 핵심 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또한, 선택 코딩 과정을 통해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연관시키고 관련성을 확인해 나갈 수 있다. 선택 코딩 과정을 통해 범주들의 개념과 속성, 차원을 통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통한 연구의 윤곽을 발전시킬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 핵심 범주

핵심 범주란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고, 다른 모든 범주들과 적절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자료에 자주 드러나는 범주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사고 및 감정 변화’로, 난임 남성들은 난임의 과정 속에서 자신과 아내,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과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패러다임-현상에서 심리적 고통(부정적 사고, 부정적 감정), 패러다임-작용/상호작용에서 자기반성(깨달음, 정서변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고와 감정의 변화 과정들이 결국 패러다임-결과(난임 해결을 위한 노력, 부부관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구체화 되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로 관찰된 요소인 ‘사고 및 감정 변화’를 핵심 범주로 선택하였다.

## 유형 도출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및 감정 변화’라는 난임 남성들의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범주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난임을 경험하는 남성들’에 대한 이론으로 ‘소통형’, ‘갈등형’, ‘관망형’, ‘자기반성형’이라는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가설적 관계는 축 코딩의 결과물에서 분석된 속성과 차원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범주들 속에서 발견되는 속성과 차원을 비교하였고, 각 범주와 하위 범주들의 속성이 어떠한 차원에서 존재하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과정을 토대로 하위 범주들이 속하는 차원들을 구별하였고, 강도라는 속성에서 강한지 약한지, 정도라는 속성에서 많은지 적은지, 수준이라는 속성에서 높은지 낮은지, 유형이라는 속성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혹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범주들이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난임을 경험하는 남성들에 대한 유형’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귀납적 분석을 통해 연구의 핵심 범주인 ‘사고 및 감정 변화’가 유형에 따라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은 표 4와 같다.

## 소통형(Communication type)

소통형 유형은 난임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한 유형이다. 비록 난임이라는 현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에 난임 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었으나, 임신 및 출산지식에 대한 인지 오류가 적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고 및 감정 변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난임 해결이라는 과업을 아내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

려는 양상도 나타났다.

**갈등형(Conflict type)**

갈등형 유형은 난임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 하지만, 소통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갈등 상황을 많이 마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괴로운 감정과 상황에 자주 노출되었고, 이러한 변화들이 역기능적인 사고와 감정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부부관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양상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관망형(Wait and see type)**

관망형 유형은 난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들을 비교적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유형이다.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는 중압감은 적었지만, 지지체계들과 아내의 반응으로 인해 사고 및 감정의 변화 과정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다소 높았으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

게 부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는 특징이 있었다.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양상이 수동적인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서 갈등형과 차이가 있었다.

**자기반성형(Self-reflection type)**

자기반성형 유형은 난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들 속에서 중압감을 비교적 크게 나타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이 있었으나, 난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지지체계들의 긍정적인 지지가 있었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고 및 감정 변화에 대해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의 지난날을 반성하는 기회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후에는 보다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상기 유형 도출을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난임 남성들에 대한 심리적, 성적, 직업적 특성들에 대한 선택 코딩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표 4. 남성들의 난임 경험 유형 도출

패러다임	범주	범주 별 속성의 차원			
인과적 조건	난임 경험 및 인식	강함	강함	강함	강함
백락적 조건	난임 외상	강함	매우 강함	약함	약함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지오류	적음	많음	많음	많음
현상	심리적 고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낮음
중재적 조건	지지체계의 변화	긍정적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아내의 변화	많음	매우 많음	많음	적음
작용 및 상호작용	아내에 대한 인식 변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자기 반성	많음	적음	적음	많음
	임신 및 출산 지식 습득	많음	적음	많음	많음
결과	난임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	매우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부부관계의 변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유형 도출 결과		소통형	갈등형	관망형	자기 반성형



는 다음과 같다.

#### 유형 분석: 심리적 특성, 직업·환경적 특성

남성들은 난임 과정을 통해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생활 및 집안 생활에서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고, 동시에 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이 하락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고통에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지도류보다 비교적 난임 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난임 외상이 강할수록 심리적 고통은 높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은 표 4와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난임 과정에서 남성이 평소 인지하고 있는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병원 일정과 직장 생활, 가사 노동, 아내와의 관계 등 난임 과정 전반에서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경험들(맥락적 조건, 난임 외상)이 남성들의 부정적 사고와 감정(현상,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난임 외상에 대한 개념(concept)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난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결국으로 인한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수면 부족을 겪으며 업무 능률 저하로 이어지는 일련의 악순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반복되는 악순환의 과정이 남성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근 및 능률 저하와 같은 회사 생활에서의 역기능 경험은 이후로 중재적 조건에서 나타나는 지지체계의 반응들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

고받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심리적 고통이라는 현상은 지지체계의 반응(중재적 조건, 지지체계의 변화)이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결과(작용 및 상호작용, 자기반성과 아내에 대한 인식 변화)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은 표4와 같다. 지지체계의 변화의 하위 범주는 직장동료, 친구 등이 포함되고, 이는 맥락적 조건 중 난임 외상에서 나타난 하위 범주와 유사한 개념(직장생활, 친구 관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상사/동료와 자신의 난임 사실을 교류하고 상의할 수 있는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도와주는지, 난임 경험이 있는 동료의 유무 등이 중요한 개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재적 조건 중 아내의 변화보다는 지지체계의 변화가 보다 밀접하게 남성들의 심리적인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결국 남성들의 사고와 감정 변화 과정이 아내와의 관계 양상보다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양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컫는다.

#### 유형 분석: 성(性)적 특성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난임 남성들에 대한 성적 특성 및 변화들은 주로 성관계 양상에 대한 요소들로 나타났다. 즉, 난임 과정을 통해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심리적인 변화들을 성관계 과정을 통해서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 패러다임의 하위 범주인 변화된 성관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다 보니 감정보다는 목적의식이 앞서게 되고, 반복할수록 자신이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으며,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실패할 것만 같

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었다. 또한, 실제로 실패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자책감과 좌절감이 들었고, 그로 인해 성관계에 더욱 의무감을 갖고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부러 미룰 때가 있었으며, 억지로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어렵게 성공하게 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아울러서 앞서의 심리적, 직업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지체계의 변화(패러다임-중재적 조건)가 긍정적일 때 부부관계의 변화(패러다임-결과)도 비교적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난임 과정이 남성들의 성관계와 그로 인한 감정변화 및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지지체계의 긍정적인 반응들과 언행이 동반된다면 부부관계 및 성관계와 관련된 요소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난임 인구에 대한 의식적 제고와 더불어, 그동안은 다소 미진했던 남성들로 연구 분야를 초점화하여 심리적, 직업적, 성적 영역들을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식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대부터 50대까지 총 8명의 연구 참여자와 1:1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남성들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난임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난임’이라는 현상이 아내, 친구, 직장동료, 가족들과의 소통 속에서 사고 변화 과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아버지 역할을 하

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 ‘사람들이 나를 한심한 남자로 볼 것 같은 생각’, ‘나는 남들과 달리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등 부정적 사고 과정을 겪게 된다. 이와 동시에 부정적 감정도 겪게 되는데, 우울감, 무가치감, 부담감, 소외감, 분노 등 부정적 감정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결국 이와 같은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 일상에서 역기능을 일으켜서 갈등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임 남성들의 정신과적 증상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한 Seo와 Kim (1998)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는 여성들이 난임 과정 속에서 우울감, 부담감, 외로움, 무가치감, 화남 등 성격변화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황승숙(1999)의 연구 결과와도 합치되므로, 이를 통해 난임 과정이 성별에 관계없이 심리적 고통의 과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위와 같은 남성들의 심리적 고통 상황이 직업 및 사회생활과 상관을 이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혜실(2002)의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직업 활동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어 난임이라는 힘든 과정 속에서 일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해 일상의 괴로운 과정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요소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 생활 내에 부정적 시선들이 남성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 동료들이 지나치게 불편해 하거나, 난임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짐에 따라 남성들은 직장생활 속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업무, 동료와의 관계, 휴가 처리, 대화 소재의 한계성, 업무 능력 변화와 같은 직업적 영역과 관련된 변

수들이 개방 코딩에서 다수 도출되었고, 이러한 변수들이 축코딩의 결과 값 중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에서 고루 나타났다는 점이 여성 연구와의 차이점이며, 이는 남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 상황이 직업 및 사회 환경적 요인과 다수의 상관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난임이 남성들의 성관계와 부부관계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성관계를 실패하는 것인지 의심하거나, 인위적인 성관계 횟수와 시도에 의무감이나 창피함,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된 성관계 양상으로 인해 부부간에 조급함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소한 질문에도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면 서로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부정적인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서로가 더 이상 성관계의 문제로 싸우지도 않고 말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노력이 오히려 성욕을 줄게 하는 경우도 개방코딩에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인 정국인과 엄명용(2014)의 결과인 '부부관계 질의 고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요소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시술 과정에서 조급함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부부간 감정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었으며, 대안 모색 과정에서 입양에 대한 입장차이,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 여부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변화되는 성관계 양상 또한 부부간 갈등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같은 성적 특성들을 여성 연구와 비교했을 때 오

히려 공통점이 확인 되었고, 성행위에 대한 회피, 성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같은 개념으로 확인되었다(한혜실, 2002). 차이점은 패러다임에서 발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경우 성관계의 갈등 및 변화 양상이 주로 결과 패러다임에서 도출되었다면, 여성 연구에서는 인과적 조건 패러다임에서 도출되었다. 성행위에 대한 여성의 거부행위가 난임이라는 인과적 조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고, 이는 성관계 양상 변화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관계 양상 변화는 성별에 따라 난임 과정 속에서 사고, 감정, 환경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혹은 종착점이 될 수도 있겠으며, 이러한 성별 간 차이가 난임 과정에서 악순환을 유발하는 한 가지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넷째, 남성들은 난임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과 사고 및 감정 변화가 있지만, 이를 통해 모두 같은 양상으로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난임이라는 현상을 사람마다 다른 양상으로 경험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별로 난임 과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반응, 반응으로 인한 결과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다른 결과들에 귀납적 분석을 시도하여 '소통형', '갈등형', '관망형', '자기반성형'이라는 유형을 도출하였다. 특히, 유형 분석을 통해 구분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이 '난임 외상'과 '지지체계의 변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들은 난임 과정을 통해 직장 생활, 아내,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상황을 경험하고, 이러한 갈등상황인 난임 외상의 과정들이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심리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고통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 관망형과 자기반성형에 비해, 소통형과 갈등형 유형의 참여자들은 난임 외상에 대한 수준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변화의 요인을 만드는 조건은 지지체계의 변화로 밝혀졌다. 심리적 고통이라는 현상은 지지체계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친구, 직장동료, 가족들의 언행이 긍정적이었던 소통형과 자기반성형 유형의 참여자들은 상호작용 전략에서 자기반성(깨달음, 정서변화)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체계의 반응이 다소 부정적이었던 갈등형과 관망형 유형의 참여자가 자기반성을 비교적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 차이점을 통해 비교할 수 있었다. 아울러서 지지체계의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부부관계의 변화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형 분석 결과는 남성들의 난임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요소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난임 외상과 지지체계의 반응 모두 하위 범주 속에 직장동료, 친구, 가족과의 상호과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 분석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남성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전체 난임 과정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난임 남성들이 사회적 가면(social persona)을 쓰고 살아간다는 정국인과 엄명용(2014)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고, 선행 연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과정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패러다임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남성들이 사회적 가면을 벗고 보다 적응의 양상으로 난임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난임을 단순하게 출산 성공에

목표를 두고 부부간의 문제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의의와 시사점을 내포한다. 첫째, 증가하고 있는 난임 인구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확립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특히 그중에서 기존에 연구 진행이 미비했던 남성들만 초점화하여 질적인 자료를 수집함에 그 의미가 있다. 기존 난임 연구들은 여성 대상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개방 코딩으로 제시한 120개의 개념을 통해 남성들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실질적 목소리(real voice)를 수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질적인 자료들이 추후 난임 연구에서 양적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초적 자료 확립에 일조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난임 남성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성적, 직업 및 사회 환경적 변화 과정과 특징들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난임 분야에서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우울감, 무가치감, 외로움, 자신감 하락 등의 정서 변화가(이영희, 2018; 정국인, 2014; 한혜실, 2002; 황승숙, 1999; Hwang & Jang, 2015) 본 연구를 통해 남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감정으로 분석되어 심리적 고통이라는 현상이 도출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결과가 난임 분야에서 정신건강의 필요성을 언급한 외국 연구들의 주장과도 부합함으로써(Bolvin & Gameiro, 2003; Cousineau & Domar, 2007; Gameiro et al., 2015) 앞으로의 한국 남성들에 대한 난임 연구에서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선행 연구에서 미진했던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등 난임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결과물들을 이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남성들의 난임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난임 남성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정국인 & 엄명용, 2014), 난임 과정상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조건들이 우울감, 무가치감, 외로움 등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감소시키는지 알기 어려운 단계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한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여 현상의 상관들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범주(난임 외상, 지지 체계들의 변화, 성관계 양상)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남성들의 난임 과정을 긍정적이게 혹은 부정적이게 몰아가는 심리적, 성적, 직업 및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성된 이론들이 임상적 측면에서는 난임 남성들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자료가 될 수 있고, 척도 등 심리검사 제작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및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의 결과 값들이 모든 난임 남성들을 대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 연구대상자를 표집 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포화를 근거로 두고 가급적 많은 연구 참여자를 표집 하였으나 남성으로서 난임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COVID-19로 인한 면담 방식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20대부터 50대까지 총 8명의 연구 참여자 밖에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임이라는 현상 전부를 균형감 있게 대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양화된 연구를 통해 남성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난임 남성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연구가 아직 시작의 단계이므로, 본 연구보다 많은 대상자를 표집 하여 질적으로 풍부한 자료들을 축적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 같은 반복 검증의 과정을 통해 전집의 속성을 면밀하게 유추할 수 있는 질적 연구들이 더 많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축 코딩과 선택 코딩의 결과 값들이 실제 차원에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남성의 유형 등 연구 결과 값이 임상 집단에 따라 다른 관계성으로 관찰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특성상 귀납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연역적 연구들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통제된 변수들 사이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연구의 가설들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미옥, 남현아, 윤미선 (2016). 난임 치료 과정 중인 여성의 난임스트레스, 우울 및 회복탄력성.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1), 93-104.
- 김태현, 김양호 (2003). 중년남성의 남성역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김효선. (1987). 회사원 생활을 통해서 본 한국 남성의 적응과 소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민소원, 김영혜, 조영란 (2008). 불임여성의 스트레스,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1), 19-32.
- 이영희 (2018).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국인 (2014). 난임여성의 고통체험과 벗어남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사회복지연구*, 45(4), 5-35.
- 정국인, 엄명용 (2014). 남성들의 난임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6, 29-54.
- 조남욱, 박영숙 (1996). 불임경험의 사회문화적 기제 (mechanism)와 간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191-202.
- 한혜실 (2003). 근거이론 접근에 의한 여성의 불임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황승숙 (1999). 불임 여성의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Boivin, J. (2003). A review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 infertility. *Social science & medicine*, 57(12), 2325-2341.
- Boivin, J., & Gameiro, S. (2015). Evolution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in infertility. *Fertility and sterility*, 104(2), 251-259.
- Cousineau, T. M., & Domar, A. D. (2007). Psychological impact of infertility. *Best Practice & Research Clinical Obstetrics & Gynaecology*, 21(2), 293-308.
- Gameiro, S., Boivin, J., Dancet, E., de Klerk, C., Emery, M., Lewis-Jones, C., ... & Vermeulen, N. (2015). ESHRE guideline: routine psychosocial care in infertility and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a guide for fertility staff. *Human Reproduction*, 30(11), 2476-2485.
- Glaser, B. G. (2001). *The grounded theory perspective: Conceptualization contrasted with description*. Mill Valley, Calif: sociology press.
- Hwang, N., & Jang, I.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level of couples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supporting program for infertile coup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8(3), 179-189.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203-210.
- Padgett, D. K. (2016).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antescio, V. (1986). Nonorganic infertility: Some research and treatment problems. *Psychological reports*, 58(3), 731-737.
- Seo, J. T., & Kim, K. H. (1998). The Psychiatric Problem of Male infertility Patients by Symptom Check List-90 (SCL-90).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25(3), 349-353.
- Stern, P. N.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Image*, 12(1), 20-23.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erzioglu, F. Ü. S. U. N. (2001). Investigation into effectiveness of counseling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in Turkey.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 Gynecology*, 22(3), 133-141.
- Webb, R. E., & Daniluk, J. C. (1999). The end of the line: Infertile men's experiences of being unable to produce a child. *Men and Masculinities*, 2(1), 6-25.

원고접수일: 2023년 6월 28일

논문심사일: 2023년 9월 8일

게재결정일: 2023년 9월 8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3, Vol. 28, No. 4, 1095 - 1117

---

# Psychological Factor of Male Infertility Experience: Grounded Theory Approach

Jun-Ho Yoon  
Borame Medic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yun-Soo Kim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formulate a conceptual model for the male infertility processes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factors, which can be examined by delving into the underlying core phenomena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stres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employed a dual sampling approach, utilizing both snowball sampling and purposive sampling, to gather a cohort of men who had experienced infertility for more than two years. In-depth interviews were subsequently conducted with a diverse group of eight participants ranging in age from 20 years to 50 years. Qualitative data from these in-depth interviews were meticulously transcribed and subjected to analysis employ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hrough an open coding process, a total of 120 concepts, 26 subcategories, and 11 overarching categories emerged. Additionally, utilizing axial coding, we identified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infertility' as a causal condition, 'Infertility trauma' and 'Cognitive misconceptions about pregnancy and childbirth' as contextual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s the phenomenon under scrutiny. Furthermore, the intervention conditions were found to be 'Changes in the support system' a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wives,' along with 'Self-reflection' and 'Acquisition of knowledge about pregnancy and childbirth' as the interactive factors. The resultant outcome encompassed 'Efforts to address infertility' and 'Alterations in marital relationships.' Through the selective coding process, we uncovered the core category of 'Cognitive and emotional transformation.' Building upon this, we classified various male infertility experiences into the following four distinct types: 'Communication type', 'Conflict type', 'Wait and see type' and 'Self-reflection type'. Based on these findings, we engaged in a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offered suggestions for prospective research endeavors.

*Keywords: Infertile Men, Psychology, Grounded Theory*